

민주 임택 vs 혁신당 김성환, 8년 만에 리턴 매치

6·3 지선 현장을 가다 <5>광주 동구

민생현장 찾아 표밭갈이 분주...공약 완성도 매진 행정 연속성·안정적 구정 요구 속 3선 피로감 변수

6·3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 간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동구청장 선거는 현 구청장인 임택 후보의 무투표 당선에 예상됐지만, 김 전 구청장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8년만에 '리턴 매치'가 상사 됐다. 여기에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격돌'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지 않고 득표율 40.40%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준 김 후보가 다시 한번 제도전하는 만큼 임 후보의 수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임택 후보는 3인으로 치러진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진출.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 복지, 경제 등 전 분야

에 걸쳐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서비스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동구의 미래 비전으로 AI 중심 헬스케어 도시를 설정. 동구 금남로에 AI 헬스케어 동구 타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 조성,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주차장 확대, 골목길 정비와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생활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강화도 공약으로 내놨다.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지를 통한 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임 후보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민생 현장을 살피는 등 민심 다지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가 동구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지역민의 예의를 듣고 현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고 있다.

그는 2016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재선에 실패한 후 지방선거와 총선 문을 계속 두드려 왔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남구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5자 구도 속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조국혁신

당 간판을 단 만큼 이번 선거에서 임택 정장의 3선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광주 복합쇼핑몰 완공 시 원도심 상권이 최대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이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구 발전 방안으로는 총정리 레트로-뉴트로 특화타운 조성, 주차가 편한 동구 실현, 푸른길공원 활성화, 관광랜드마크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성 등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구도에 대해 임택 후보의 우위를 예측하면서도 양측 모두 조직력이 강점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피로감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붙는 구도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또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이라는 매치업 속에서 민주당이 견고한 텃밭을 유지할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처럼 조국혁신당이 새바람을 탈지가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강력한 이들의 대결인 만큼 누가 민심을 사로잡을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민주당의 텃밭이라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선거 직전 훈풍을 탈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국 "호남이 돈·연줄·재력 없이 뽑힌 후보들 키워야"

광주서 호남선대위 출범식

"호남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큰 주역은 혁신당의 헌신이었다"며 "돈·연줄·재력 없이 뽑힌 후보들을 호남에서 키워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당을 키워줘야 이재명 정부가 더 잘될 것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 '호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며 사람도 자금도 많다"며 "하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땅심'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땅을 깊이 파서 뒤집어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에서 객도는 혁신당을 선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선대위를 꾸려 이재명의 당선을



지난 2일 광주 남구 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6·3지방선거 조국혁신당 호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한 뒤 '바람개비'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해 뛰었고 당선 후에는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당을 키워줘야 이재명 정부가 더 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돈이나 연줄, 재력으로 뽑히지 않았다"며 "후보들이 가득권을 허파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혁신당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정면 비판하며 혁신당 후보들의 정령을 강조했다.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은 "지금의 호남 정치는 민주당의 독점 공천이 곧 권력이었다"며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쳤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혁신당 후보 지지를 통해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호남권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후보들은 경찰 수사, 당원정보 유출 등의 의혹으로 당선 후에도 강력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호남의 일방적 독재는 무능과 부패를 피할 수 없다. 혁신당이 부패 제로를 보여 줄 것이며 혁신당 후보의 강점이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광산을 보선 출마선언·공약발표 잇따라

진보당 전주연·기본소득당 신지혜 등 출사표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 인준 권한 최고위 위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범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전주연 전 광주시의원이 "진보, 민주 양념개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변명을 이루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전 후보는 전남광주의 변명을 위한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전남과 광주는 공천이 당선이고 경선이 본선이었다"며 "정치적 긴장과 경쟁이 사라진 전남광주의 변화를 광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전남광주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역 정치의 설득력도 약화할 것"이라며 "전남광주 국회의원 18석 중 단 한 석을

진보당으로 선택해 주는 기적이 호남정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신지혜 최고위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1호 공약을 내놨다.

신 후보는 "광산구 주민의 진보정치가 기대에 응답해 모두의 미래를 여는 광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광산구 산업혁신을 약속했다.

광주 제조업 70%를 책임지는 광산구에서 AI 대전환에 발맞춘 미래전략을 추진. 지역 내 고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 △군 공항 부지 AI 거점 활용 △미래차·반도체 산업혁신 △산업전환공사 설

립 등을 골자로 한 '광산구 산업혁신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에 행정통합 정부지원금 20조원을 활용. 광주시민 모두의 소득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지혜 후보는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AI 시대의 노동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략공천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인준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광주 광산을 포함한 6개 지역구의 인준 권한을 최고위로 위임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공천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정의당은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장성·무안 경선 재심 잇단 기각

소영호·나광국 관권선거·선거법 위반 주장 불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장성군수와 무안군수 경선에서 제기된 재심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수사까지 겹치며 본선 국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심위원회를 열고 장성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소영호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소 후보는 현지 김한중 후보가 농민수당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관권을 동원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 후보는 당 결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장성 경선은 시작부터 후보 간 자력 공방과 비방전이 이어졌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논란으로 재

심이 한 차례 인용되며 '3인 결선'이 지어졌고,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결선투표가 재심시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은 재심위원회를 열어 나광국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나 후보는 김산 후보가 지난달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회의실 사용 절차와 확성기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3일 무안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당 광주시당, 기초의원 5곳 경선 발표 18명 본선행...광역 청년 비례후보는 박민영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 나갈 5개 선거구 18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앞서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동·남·북·광산구 5개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100% ARS 투표방식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을 진행. 본선 진출자를 선출했다.

선거구별 본선 진출 후보자(가나다 순)는 △동구 가 문선화·이지애·홍두석 △신종현·윤수홍·은병희·최미정 등이다.

경쟁이 치열했던 △북구 가 김영순·이재봉·최기영 △광산구 가 김길화·배홍석·유영중·정진태 △광산구 나 공병철·공우태·박미옥·박창현 등이 후보로 확정됐다.

시장 관계자는 "18명의 당선인은

앞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시장 상무위원회 의결과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후보자(공천자)로 확정되게 된다"며 "본선 기초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로 박민영 후보를 선출했다.

비례대표 경선에는 구문경·김정욱·박민영·박병인 후보가 나섰고,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의 경선을 통해 박민영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박 후보는 향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대변할 계획이다.

광역의원 북구 1선거구에 대한 추가 경선은 이날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